

# 2014년도 제 2차 이사회 결과보고

## □ 이사회 개요

- 일 시 : 2014. 05. 21.(수) 16:00 ~ 18:00
- 장 소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비즈니스센터 5층 세미나실
- 참석인원 : 총 25명
  - 임 원 : 13명
    - 이 사(11명/18명): 이사장) 이희재, 원장) 오재록,  
이사) 김광성, 송재용, 정경미, 조관제, 장태산,  
이양원, 전세훈, 한창완, 백원장(서면결의)
    - 감 사(2명/ 2명) : 민승용, 박상민
  - 배 석 : 12명
    - 부천시 관련직원(2명) : 최영현 팀장, 이수미 주무관
    - 진흥원(10명) : 김종선 전문위원, 오동택, 이용철, 김대진, 김선미,  
김충영, 최미영, 오덕영, 백정재, 김선형
- 회의내용
  - 부의안건 (2건)
    - 제2014-7호 :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개정(안)
    - 제2014-8호 : 2014년도 수입·지출 3차 예산 변경(안)
  - 기타사항 (1건)
    - 2014년도 제 1차 이사회 개최결과 보고

## □ 회의 결과

### ○ 부의안건 처리결과

의안번호	안건명	구성 인원	결의의원		서면결의/미참석/기권	처리결과
			찬성	반대		
제2014-7호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개정(안)	10명	10명	-	1명 / 7명 / 0명	원안 통과
제2014-8호	2014년도 수입·지출 3차 예산 변경(안)	10명	10명	-	1명 / 7명 / 0명	원안 통과

\* 제2014-8호 안건은 원안통과이며, 이 중 「사업 조정에 따른 지출예산 변경 - 3. 만화창조인력 양성사업」 건에 대해 5월 24일 만화가 단체 협의 결과에 따라 서면이사회 개최여부 결정

### ○ 부의안건 주요의견

의안번호	안건명	발표자	의견내용
제2014-7호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개정(안)	이희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위원 풀 제도는 공정성 의미에서는 맞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너무 기계적인 측면이 있음.</li> <li>· 심사 풀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의 검증도 같이 의논했음 좋겠고, 풀이 있다 하더라도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같이 의논해서 확인하는게 중요하지 않나 싶음.</li> </ul>
		한창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영역을 세부적인 변수를 다양화 시켜서 영동한 심사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풀 구성을 체계화 시키는게 필요함.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서 그런 오류를 잡아내기를 바람.</li> </ul>
		이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어가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음.</li> </ul>
제2014-8호	2014년도 수입·지출 3차 예산 변경(안)	전세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만화연대가 단독으로 위탁받아 하든지, 카툰협회를 섞어서 하든지, 만화가협회는 합의에 발언 건을 두지 않겠다는 거지 이걸 위탁사업을 안 받겠다는 결정을 내린 건 없음.</li> </ul>
		오재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사업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함. 문화부에서는 진흥원에게 국고를 지원한거고 목표는 이 양성사업이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되는 것임. 그러기 위해서 진흥원이 직접 수행해도 된다고 판단함. 지금 사업이 1/3까지 진행된 상황이고, 작년도 사업설계 안에서 만화단체들과 했던 부분과 올해는 조금 영역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 진흥원의 입장에서 판단 해주셨으면 좋겠음.</li> </ul>

제2014-8호	2014년도 수입·지출 3차 예산 변경(안)	장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들이 커지다보면 만화가들이 소외됨. 만화가들의 특정된 직업의식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자꾸 익숙 한데로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만화가들이 빠진 의견들이 됨. 당사자들이 가능하다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li> </ul>
		전세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흥원이 만화가 단체에 사업을 하나쯤 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봄.</li> </ul>
		송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만화연대에서 이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하면 가능하죠. 그러나 그 부분이 다시 한국만화연합이 맡아 진행하면 감사로 본다면 편법임.</li> <li>· 이미 사업이 진행됐고 사업자 선정까지 다 확정된 상태인데 지금 와서 이걸 우리만화연대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겠냐하는 거고, 이것을 다시 어떤 만화가단체에서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주관하기에는 힘들어 보임. 이 사업의 주체를 만화가단체에서 합의점을 갖고 얘기해 주셔서 내년에 할 때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li> </ul>
		조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래 만화연합을 결성하게 된 취지가 만화 단체들이 산재되어 있는 걸 모여 정책개발도 하고 사업도 생각해서 만화가는 만화만을 그럴 수 있도록 이런 조직을 만들려고 했던 것임.</li> <li>· 무리하게 어떤 식으로 통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들이 발생함.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흥원이 맡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 함.</li> </ul>
		전세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이사회에서는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보류해 주시고 협회와 마지막으로 접촉해서 내용들이 합의가 된다는 부분들이 생기면 위탁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정도로만 결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음.</li> </ul>
		오재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 같은 경우는 위탁으로 나가든 우리가 직접 하든 아주 디테일하게 비용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li> </ul>
		김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화가의 입장에서 보면 재미도 느끼고, 진흥원에서 알아서 계약직을 채용해서 처리하면 깔끔하다는 생각도 등. 여태껏 쏟은 게 있기 때문에 아까움. 다시 한다고 해도 일은 순조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협회와 진흥원과</li> </ul>

제2014-8호	2014년도 수입·지출 3차 예산 변경(안)		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란 걸 알기 때문에 갑갑함.
		한창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사업비를 봤을 때 8~90%가 작가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진흥원이 직접 수행한다고 해서 딴 곳에 쓰는 것이 아님. 원장님과 (전세훈)이사님이 부족한 점에 대해선 자문을 받고 두 분이 좀 더 많이 애길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함</li> </ul>
		이희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화연합이 앞으로 법인화 된다면 내년엔 만화연합이 독자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화연합으로 바로 줄 수 있도록 되든가 하면서 편하고, 올해는 이미 진행이 되었고 진행과정에서는 만화계 내의 조율이 늦어져 나타난 결과이므로 올해는 도리가 없음.</li> <li>수행처 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사업이) 작가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임. 그렇게 비춰본다면 어디서 하더라도 도움이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한다면 만화계 내에서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1차적이고, 그것이 미흡한 상태에서는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봄.</li> </ul>
		한창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결을 하신 다음에 만화가협회 이사회 때까지 하지 않고 있다가 그때 가서 이 결정이 다시 번복이 되거나 만화계 전체가 만화연합에 주기로 했다, 우리만화연대에 합의를 했다고 결정이 되면 그때 조정하는 걸로 조건부로 승인 하죠.</li> </ul>
		이희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세훈 이사, 김광성 회장께서도 만화가협회랑 한 번 더 조율을 해보시고, 어떤 식으로든 만화가협회에서 관계는 하지 않되 우리만화연대에서도 한다라고하면 거기 대해서 집행이나 진행사항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 라던가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해주면, 그 뒤에 다시 의논해서 이것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죠.</li> </ul>
		전세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회하고 한 번 더 접촉을 해가지고, 협의에 내용에 따라서, 만약 합의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합의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서면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으로 바람.</li> </ul>
		오재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금 원안대로 변경을 다 해주시는 것으로 바람.</li> </ul>

제2014-8호	2014년도 수입·지출 3차 예산 변경(안)	이희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차적으로는 여기나온 원안대로 하겠음. 3항의 만화창조인력양성사업은 해당 단체하고 약간의 시간과 조율을 거치고 다시 서면이사회를 개최하여 의논하는 걸로 하겠음.</li></ul>
----------	--------------------------	-----	---